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9월 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산업경제정책과 정대진 과장(2110-5110), 차세운 사무관(5115)		

30대 그룹 하반기 투자 82조원, 고용 6만1천명

- 지경부장관 & 3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 개최 -
- 연초 계획한 투자(151조원), 고용(12.3만명) 차질없이 진행중 -

□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9월5일(수) 07:30 소공동 롯데호텔에서, 30대 그룹의 기획·총괄 사장단과 "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!"이라는 슬로건 하에 「30대 그룹 간담회」를 개최하였음

※ 간담회 개요 및 참석자는 【참고1】, 【참고2】 참조

○ 금번 간담회는 지난 1.13일 열렸던 「30대 그룹 간담회」의 후속 회의 성격으로, 당시에 각 그룹이 계획했던 투자·고용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,

○ 정부와 업계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,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였음

- 특히, 지금은 중소·중견·대기업간 협력이 필수라는 인식하에, 대표 중소·중견기업 5개社를 추가로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음

* 1.13 간담회 당시에는 대기업(30대 그룹) 사장단만을 초청

□ 홍석우 장관은 최근 성장둔화 및 경기위축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, 기업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함

○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수출이 성장의 돌파구가 되기 어려운 지금, "우리 경제의 역동성"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고용 확대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,

- 특히,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, 기업들이 계획된 채용 일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마무리지을 것을 당부하였음

○ 아울러, 기업의 의지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을 언급하며, 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음

□ 30대 그룹은 올해 총 151.1조원의 투자 및 123,100명의 고용*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혀,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, 연초에 계획하였던 투자(151.4조원) 및 고용(12.3만명) 규모**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

* 이하 고용은 정규직 기준 ** 1.13 간담회 당시 30대 그룹이 제출하였던 계획치

【 30대 그룹 투자·고용 – 연간 실적 및 계획 】

	`11년 실적	`12년 계획(연초)	**`12년 계획(현재)**
투 자	133.2조원	151.4조원	**151.1조원**
고 용	121,500명	122,600명	**123,100명**
(고졸채용)	(34,770명)	(37,260명)	**(37,300명)**

○ 조선·건설·정유 등 국내외 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일부 분야에서는 투자계획의 부분적인 축소가 불가피하기도 하였으나,

- 유망 신산업 등 타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가 감소폭을 상쇄하여, 계획하였던 투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

○ 상반기 중 69.1조원의 투자와 62,500명의 고용을 완료, 연간 계획 대비 40~50% 정도의 양호한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,

- 하반기 예정된 82.0조원의 투자와 60,600명의 고용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였음

- 특히, 고용 중 30% 가량인 18,800명을 고졸채용으로 진행, 학벌보다 능력이 존중받는 채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을 밝힘

【 30대 그룹 투자·고용 –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】

	연간 계획	상반기 실적 (진행률)	**하반기 계획**
투 자	151.1조원	69.1조원 (45.7%)	**82.0조원**
고 용	123,100명	62,500명 (50.8%)	**60,600명**
(고졸채용)	(37,300명)	(18,540명) (49.7%)	**(18,760명)**

○ 아울러,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·환경규제의 완화, 전략 신산업 및 녹색·신재생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며

＊ 설비·R&D투자 세액공제 확대, 핵심설비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경감
＊ 자연보전권역 내 신·증설 규제의 합리화 ＊ 신재생 육성책 강화 및 규제 명확화

- 특히, 일부 대기업은 현안 애로 해결이 시급한 투자프로젝트 내역을 별도로 지경부에 전달,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음

□ 간담회 참석자들은, 정부와 업계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국민경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, 중소기업·서민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함

○ 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촉진하는 등, 중소·중견·대기업 동반성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,

＊ 지경부는 45개 대기업과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 체결 (6.11)

○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기업별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는 등, 전통시장과 서민이 “따뜻하고 온기있는 한가위”를 보내도록 하기 위한 배려를 기울이며,

- 아울러, 가뭄 및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·이재민을 위한 정부·업계의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

□ 홍석우 장관은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은 관계 정부부처와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며,

○ 대한상의 등 기업규모별(중소·중견·대기업) 경제단체와의 협조도 강화, 기업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하였음

○ 아울러, 30대 그룹이 전달한 애로해결신청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로 “지원 전담반”을 구성하여 밀착지원할 예정으로,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토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으며,

＊ 프로젝트와 관련 깊은 지경부 내 업종 소관과 중심으로 전담반 구성 및 담당자 지정

- 앞으로도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결 지원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 후, 유사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함

＊ 현재 대한상의, 전경련, 중기중앙회, 중견기업연합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 조사중

【참고1】 30대그룹 간담회 개최 계획

□ **일시/ 장소 :** 9.5(수), 07:30~09:20, 소공동 롯데호텔 (2층 크리스탈볼룸)

※조찬 포함

□ **목 적**

○ 경기둔화 우려 완화,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·업계 공동대응 결의

＊ 유로 재정위기,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불안 지속중

○ 기업의 상반기 투자·고용 실적 점검 및 하반기 계획 조사

＊ 상반기 간담회(1.13) 때 30대 그룹은 151.4조원 투자와 12.3만명 채용 계획 제출

□ **참석대상**

○ **(지경부)** 장관, 산업경제실장, 대변인, 산업경제정책관, 산경·성장·무역·자원실 정책과장

○ **(기업)** ①30대 그룹 기획총괄 담당임원(사장·부사장급) 26명,
②대표 중소·중견기업 5개社 사장*

＊ 30대 그룹만 초청하였던 상반기 간담회와 달리, 대표 중소/중견기업 추가 초청

○ **(유관기관)** 대한상의(부회장), 산업연구원(부원장)

□ **논의내용**

○ 투자·고용 실적과 향후 계획, 동반성장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

○ 기업 경영 애로사항, 기타 對정부 건의사항

□ **회의진행**

시간계획	주요내용	진행
~ 07:30	티타임, 장관 입장	
07:30 ~ 07:35(5′)	포토세션 (“경제에 활력을”)	
07:35 ~ 07:40(5′)	장관 모두말씀	
07:40 ~ 07:45(5′)	주제발표 (실물경제 환경 점검)	산업연구원
07:45 ~ 07:50(5`)	주제발표 (경제활력제고 위한 계획)	대한상의
07:50 ~ 09:15(85′)	종합토론 (애로·건의사항 등)	장관 진행
09:15 ~ 09:20(5′)	장관 마무리말씀	

＊ 주제발표 이후부터 대외 비공개 진행 ＊ 조찬은 주제발표 때 제공

【참고2】 30대그룹 간담회 참석자

※대상: `11.4월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상위 30개 집단
(1.13 간담회와 당시 참석대상그룹과 일치)

순번	그룹/기업	직급	성명	비고
1	삼성	부사장	육 현 표	
2	현대자동차	사장	정 진 행	
3	SK	사장	차 화 엽	
4	LG	부사장	김 영 기	
5	롯데	사장	채 정 병	
6	포스코	사장	박 한 용	
7	현대중공업	사장	김 외 현	
8	GS	사장	임 병 용	
9	한화	사장	장 일 형	
10	KT	부사장	김 일 영	
11	두산	부사장	문 홍 성	
12	금호아시아나	부사장	서 재 환	
13	STX	사장	추 성 엽	
14	LS	사장	이 광 우	
15	CJ	부사장	이 승 훈	
16	신세계	부사장	권 혁 구	
17	대우조선해양	부사장	문 규 상	
18	동부	사장	신 해 철	
19	현대	전무	이 남 용	
20	대림	사장	오 규 석	
21	부영	전무	임 성 진	
22	KCC	부사장	김 영 호	
23	동국제강	사장	김 영 철	
24	S-OIL	수석부사장	김 동 철	
25	효성	사장	박 준 형	
26	OCI	전무	윤 석 환	
27	연우	대표이사	기 중 현	중견기업
28	와이지원	대표이사	송 호 근	중견기업
29	루트로닉	대표이사	황 해 령	중소기업
30	우진플라임	대표이사	김 익 환	중소기업
31	캐프	사장	문 철	중소기업
32	대한상의	부회장	이 동 근	
33	산업연구원	부원장	하 병 기	